

皇寺塔을 爲始하여 西岳里永敬寺址塔 南山里寺址塔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또 하나의 模範石塔이 밝혀졌다. 製作年代는 新羅末期로 斟酌된다. 高(復原高)約 二・五〇m로 推定됨.

鎮川 蓮谷里 寺址調査

李 殷 昌

忠清北道 鎮川郡 蓮谷里에 逸名寺址가 있어 筆者는 이 곳을 調査한 바 있는데 그 調査된 것을 이에 略述하고자 한다.

1. 寺址

莊嚴한 山峰으로 둘러싸인 深谷을 이룬 蓮谷里「비선골」部落 一帶가 寺址로 되어 있다. 里名「蓮谷」은 佛敎的인 地名 같아 或 寺址와 關係되는 것만 같기도 하나 그 緣由는 모르겠고 附近에는 瓦片이 散在하고 또 三層石塔 一基・石碑 一基・石造佛坐像(註) 一軀가 遺存하고 있는데 特히 石塔과 石碑는 參考가 될만한 資料이다.

2. 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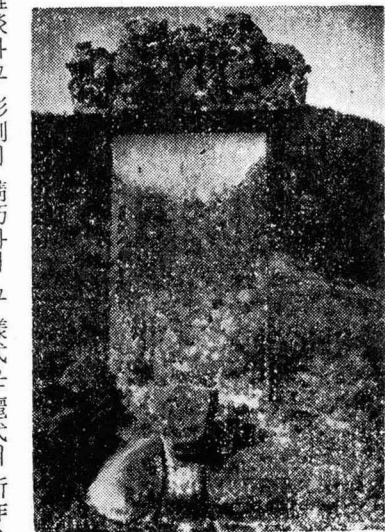
民家속에 있는 花崗岩으로 된 總高二・七m의 石塔인 바 基壇・塔身・相輪으로 되어 있다.

基壇은 二層基壇으로 모를 죽인 二個石으로 된 地臺石을 놓고 그 위에 高가 낮은 下臺中石을 놓았으며 各面에 二個씩의 流麗한 眼象을 彫刻하였고 그 위에 勾配와 副椽이 있는 下基甲石을 놓았다. 上基壇은 四枚板石으로 짜인 面石에 四隅柱가 彫出되었고 그 위에 三層級의 副椽이 彫出된 上基甲石을 놓았다. 塔身은 一石으로 된 屋身과 또 一石으로 된 屋蓋를 重積하여 形成하였다. 屋身에는 各層 共히 四隅柱가 闕게 刻出되고 初層屋身 正面(南等)에는 陰刻한 門扉가 있다. 「屋蓋石반침」은 初層이 五段이고 二層이 四段이며 屋蓋上 面은 急한 傾斜를 이룬 落水面이 四隅轉角에서 反轉을 보이고 있는데

三層屋蓋가 缺失되었다.

相輪은 露盤・覆鉢・仰花・寶輪(一個 罽) 寶蓋等이 殘存하고 있으며 이들 殘石에는 圓孔이 들어 있어 既往에 鐵製擦竿에 修飾되었던 相輪部가 推定된다.

規模는 작은 塔이나 雅淡하고 彫刻이 精巧하며 그 樣式은 麗代의 所作으로 推定된다. 現在 基壇部가 破壞되어 顛覆된 憂慮가 있으니 今後 修理保護策이 要請된다.



3. 石碑

前記 三層石塔에서 西쪽 約 八〇m 地點인 논가운데에 現存하는 碑인 龜趺・碑身・螭首가 完存하는 것이다.

龜趺는 下部가 地下에 埋沒되어 地臺石 또는 四足部는 알 수 없고 露出된 部分을 通하여 보면 우뚝하게 거북머리가 솟았으니 顛部의 筋莖이 힘 있게 表示되고 背甲과 區分되었다. 兩眼 鼻部는 破損되었고 크게 別린 입은 「앞니」가 羅列되고 兩쪽으로 「송곳니(牙齒)」가 突出되었으며 兩耳가 聳긋하고 귀 밑으로 細毛가 群生하여 氣魄이 있어 보인다. 背甲 全面에는 二重六角形으로 連續되는 龜甲文이 闕게 線刻되었고 背甲 中央에는 碑座가 造出되었으며 碑座는 左右 三角部에 眼象이 보이고 上面은 素瓣伏蓮文이 周刻된 안으로 三段 層節이 있고 長方形 碑座 孔에 碑身을 드러냈었다.

碑身은 帶靑黑色의 烏石 四面을 光澤이 나도록 研磨하였는데 碑文이 없다.

螭首는 九龍과 雲文을 高刻하였으니 그 優作에 注目된다. 九龍은 如意珠를 두고 相爭하는 格인 바 前面에는 二首가 碑額쪽으로 內向하

하고 또 二首가 左右隅角에서 外向하였으며 後面에는 雲文새로 頭身이 隱見하는데 其 一首가 中間에서 上으로 머리를 두고 기어오르고 其二首가 左右隅角에서 外向하고 있으며 頂上에는 또 二首가 相對하고 있다. 螭首 下面에는 蓮瓣文이 彫刻되고 그 안으로 三段의 받침이 造出되었고 長方形의 碑孔에 碑身 上部를 드러 맞추었다. 螭首正面에 正方形 碑額이 雲文에 싸이어 있으나 篆額 字銘은 없다.

碑身에도 碑文이 없고 篆額에도 字銘이 보이지 않으니 그 碑名도 모를 뿐만 아니라 建立由來도 알 수 없음은 遺憾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碑文이 없는 碑를 세운 理由가 궁극하다. 或 往時 塔碑 또는 事蹟碑로 龜趺·碑身·螭首 등을 마련하였다가 어떠한 事情으로 刻字를 하지 못하고 碑材를 그대로 세워 놓았는지 모르겠다. 碑文이 없어 碑로서의 眞價가 없을뿐 아니라 年代 또한 未詳이나 이 碑의 彫刻은 精巧을 다한 것으로 往時의 代表가 될만한 優作이라 하겠다. 彫刻手法으로 보아 前記 三層石塔과 같이 麗代의 所作으로 推定되는 바이다.

實測值 總高(地上高)三八〇cm 龜趺高七〇cm 幅一四五cm、碑身高二二〇cm 幅一一〇cm 厚二二cm、螭首高一一〇〇cm 長一六〇cm 幅六〇cm

(註) 寺址巨岩上에 放置된 坐像으로 頭部가 破損(後補)되었고 結跏趺座에 智學印을 하였는바 彫刻이 疎忽하다.

南原 禪院寺의 鐵佛坐像

鄭 永 鎬

禪院寺는 全北南原邑에서 咸陽行街道로 約 一km地點 左側沿道에 자리 잡고 있는데 境內에 鐵佛坐像을 비롯 石燈·礎石 등의 石材가 遺存하여 注目되었다. 이 寺刹에 對하여는 東國輿地勝覽에 所在만이 簡單히 보일뿐

이고 其他遺物에 關하여는 아무런 記錄이 없다. 筆者는 一九五九年三月에 同人 金光珠氏와 함께 이 곳을 調査했으며 今年三月에 再調査한 바 있다.

一、鐵佛坐像

藥師殿內에 主尊으로 奉安한 藥師如來像으로서 鐵製이나 金漆이 燦爛하다. 兩手는 缺하여 現在는 木造로 後補한 것이며 白毫와 耳朶의 傷痕을 補修한 外에는 比較的 完形이라 하겠다. 螺髮의 頭頂에는 肉髻가 있으며 兩眉、眼과 口唇 三道 등이 整齊되고 相好는 圓滿하다. 通肩한 法衣는 兩腕에 걸쳐 무릎을 덮었고 兩膝로부터 앞자락이 내려졌으며 背面에서 衣紋이 보이는데 全體적으로 流麗한 衣紋에 注目되었다. 實測值(cm)는 坐高二二〇 頭高四一 肩幅五〇 胸幅三四 膝幅九〇 高二二이다.

相好가 豊美하며 兩肩으로부터 胸前、膝部로 내려오면서 各部가 均整하고 端雅한 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麗初로 推定되는 優作으로 貴重한 鐵佛의 一例라 할 것이다. 現在 保存은 良好하다.

坐像下部의 佛壇속에는 蓮華臺石(註)이 있어 위를 받치고 있는데 이 佛像의 臺座는 아니나 그 手法으로 보아 麗代의 遺品으로 推定된다. (註) 長方形의 竿石위에 蓮華石을 놓았는데 竿柱의 側面에는 兩隅柱와 윗쪽의 陰刻一線이 보인다. 그 위 臺石도 長方形으로 側面

四方面에 仰蓮을 둘 리고 上面에는 다시 一段(高三cm)이 마련되어 四方面에 蓮瓣이 彫刻되었으며 (五二cm x 四四cm) 上面의 長方形龕 中央部에는 徑二〇cm의 圓形으로 凹部가 있어 注目되었다. 現在 이 위에 木造架構

